

수원FC, 새 사령탑에 김대의 감독 선임…K리그 챌린지 부천FC 35경기 데뷔전

등록 2017.10.15 16:01:25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FC의 K리그 챌린지 35라운드 부천FC와 경기가 새로운 사령탑에 의해 치러지게 됐다.

수원FC는 13일 수원FC 제3대 감독으로 김대의(43) 전 수원 매탄고 감독을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 사령탑을 맡아왔던 조종화 감독대행 체제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EB 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 34라운드 경기인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 감독은 16일 선수단과의 상견례를 거쳐 21일 오후 3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KEB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부천 FC와의 35라운드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수원FC는 조덕제 전 감독 사퇴 뒤 60여 명을 감독 후보군에 올려놓고, 수원FC 자체 감독추천위원회와 이사회 등이 검증을 거듭한 끝에 김대의 감독을 최종 선임했다.

일부에서는 화려한 선수생활에 비해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부족한 김 감독의 선임에 다소 파격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원FC는 K리그 클래식에 재진입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수원FC는 그동안 보여준 빠른 공격 축구를 이어갈 수 있는 적임자를 물색해왔다.

김 감독은 수원 영화초등학교, 화성 안용중학교, 부천 정명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 실업축구단 한일은행에 입단했다. 이후 일본 J리그 제프유나이티드 이치하라 지바(1998), 실업축구단 울산 현대 미포조선(1999)을 거쳐 2000년 성남 일화 천마 축구단에서 K리그에 데뷔했다.

2004년 수원삼성 블루윙즈로 이적해 2010년까지 활약하면서 수원삼성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2011년 싱가포르 홈 유니티드 FC에서 활약하고 현역에서 은퇴했다.

성남일화 천마축구단에서 117경기에 출전해 27득점 21도움을 기록하며 소속팀의 K리그 3연패(2001~2003년)에 이바지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서는 191경기에 출전해 24득점 20도움을 기록하며 두 번의 K리그 우승(2004·2008년)과 한 번의 준우승(2006년)에 기여했다.

한편 수원FC는 현재 K리그 챌린지에서 9승 12무 13패 승점 39점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원FC와 깃발더비로 유명한 성남FC는 13승 13무 8패 승점 52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다.

kgh@newsis.com